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외장색채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s Exterior Color around Han River in Seoul

박영순, 김미경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Park Young Soon, Kim Mi Kyoung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

● Keywords : apartments exterior colo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환경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건물인 아파트 외장색채를 보면, 주변의 경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색들이 과감히 사용되고 있어 서울,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도시환경의 조화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건설업체별로 시도되는 차별화 전략으로 인해 강하게 인식되는 색채를 경쟁적으로 사용한 것과 인공도료의 발달로 대두된 색채의 남용과 과용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과 달리,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관을 나타내는 색채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색은 자연환경색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색기호로 표시된 표준색을 지정,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며, 이러한 표준색을 선정,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무질서한 색채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도출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이미지에 대한 색채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색과 자연환경색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외장색채를 실측조사하고 자연환경색·전통색, 표준색과 비교하여 현재 아파트 외장색채사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서울시 아파트 외장색채의 현황과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측조사와 문헌고찰을 병행하였다. 실측조사는 서울 중심을 흐르고 있는 한강 주변의 아파트로 한강북로와 올림픽 대로에서 보여지는 아파트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1997년 11월 10에서 14일 사이 청명한 날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사이에 실시하였고, 비디오 및 사진으로 분석 대상 아파트를 촬영하였다. 이를 통해 대로에서 볼때 노출 정도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변북로에서 보여지는

아파트 40사례와 올림픽 대로에서 보여지는 아파트 49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아파트는 11월 17일에서 21일 사이 청명한 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측색은 만셀체계를 응용한 NCD의 측색용 색표집을 이용한 육안비색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슬라이드 촬영을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실측으로 조사된 자료를 색상(Hue)과 색조(Tone)의 색채팔레트¹⁾로 옮겨 기록하였으며, 도색 시기에 따라 1996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팔레트와 이미지 스케일²⁾로 각각 작성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한강변 아파트 외장색채 현황 조사결과 분석

아파트 외장색채의 변화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장색채의 도색시기를 조사한 결과, 1996년도를 기준으로 아파트 외장색채 사용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것은 최근 자어지는 서울도심의 아파트 외장색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색상들과 화려한 수퍼그래픽 등 색상과 톤, 그래픽 등이 건설업체별로 강렬하게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색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난초, 부채, 오리, 물고기 등 사실적 묘사와 그래픽 처리는 그라 좋은 다자안아 되고 있다고는

- 1) 일본색채연구소인 NCD(이하 NCD)에서 개발한 것으로 Muncell 체계와 ISCC-NBS 색명법, 일본색명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색상과 언어(형용사)와의 관계에서 볼 때 색상이 달라도 일정한 명도와 채도의 영역을 표현하는 형용사 언어는 몇 개의 범위 내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한 색체계. 동일한 형용사 언어로 불려지는 영역을 하나의 영역(12영역 : 12Tone)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색상, 명도, 채도로 표시되는 Muncell 체계를 언어로 표현되는 심리적인 면을 기준으로 색상과 톤으로 단순화시킨 것이다.
- 2) 1996년 통상산업부 지원 공업기술사업으로 (주)R디디자인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완료한 자료로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이미지의 정도를 색채감성척도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즉 한국인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색채이미지를 분류하는데, 한가지는 '부드러운-따뜻한'에 의한 것이고, 또다른 한가지는 '동적인-정적인'에 의한 것이다. 색채 이미지 스케일은 이러한 기준을 2차원 공간화하여 색을 해석하고자 한 것으로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와 색과 색간의 이미지적 관계(유사, 대비 등)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보여지지 않으며, 그 면적에 의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만큼 조심스럽게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절제한 색채와 패턴의 사용은 개성있고 조화되는 서울시의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1996년 이전의 아파트 외장색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는 채도가 낮은 빨강이나 노랑(R, YR계열)과 파랑색(B, PB계열)과 콘크리트 색인 회색, 무채색계열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2년간에는 자주, 분홍색(RP, R계열)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주요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996년 이전에 사용된 주조 및 보조색은 다소 어두운 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톤의 사용범위가 과거에 비해 축소되어 과거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밝은 톤의 고채도 색상사용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다양한 색상의 인공도료의 발달과 함께 건설회사 및 거주자들의 아이덴티티 추구 등의 이유로 보다 눈에 띄는 색상 사용 선호 증가, 기존의 아파트 색채와의 차별화, 밝은 분위기 선호 등의 이유가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B, PB계열과 무채색 계열의 색상은 과거 및 최근의 아파트 외장색채사용에 있어 지속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강변 아파트 외장색채 현황과 전통건축물, 자연환경 색채 비교 분석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의 색채는 갈색(Y계, YR계)이 주조를 이루며, 명도는 중명도에서 고명도, 채도는 저채도로 자연환경색채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이 파악되었는데, 이는 전통건축물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가 기와, 짚, 흙, 회, 돌, 나무 등의 자연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아파트 외장색채의 현황에서는 자연색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자주, 분홍색(R, RP계열)이 사용된 점은 매우 큰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계열의 색은 자연색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색으로서 우리나라의 최근 아파트 외장색채사용에 있어서 문제점, 즉 자연과 조화되지 않는 무분별한 색채사용의 실태를 보여주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흐름으로 판단된다.

5. 한강변 아파트 외장색채 현황과 외장표준색 비교 분석

아파트 외장표준색과 실측조사한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색상분포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톤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외장색채현황에서는 표준색에 비해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톤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표준색에서 제시된 범위 이외의 다양한 톤이 아파트 외장색채에 사용되고 있어 색상보다는 톤 면에서 보다 절제된 선택과 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아파트 외장색채계획을 위한 제언

현재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외장색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전통건축물의 색채와의 조화가 고려되지 않은 색채가 절제없이 사용되어 바람직한 서울시의 이미지를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외장색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앞서 서울시의 자연환경색과 전통색에 대한 체계적인 실측조사와 연구결과가 선행되어 바람직한 서울시 고유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건설업체별로 시각적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색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성있고 조화되는 서울시의 도시이미지를 연출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미지에 맞는 색채사용에 있어서의 법적인 규제와 함께 아파트 외장색에 사용가능한 표준색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에 이어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의 외장색채계획의 구체적인 방향을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의 외장색채는 그 형태와 재료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아파트의 높이나 배란대의 형태, 패턴 등 건물 외관의 변화나 혹은 콘크리트를 비롯한 건축재료의 특성에 따라 색채적용이 달라져야 한다. 아파트의 형태나 재질, 입면의 패턴 변화에 따라 면적비와 비례, 도색패턴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적용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색채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획일적인 색채계획에서 벗어나 각각의 기업 이미지에 적합한 통일감있는 색채 계획은 물론 개성있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 색채계획에 있어서는 그 도시의 기후나 풍토, 입지조건, 전통색채와 기존색채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지역별 색채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적 환경 및 기후, 일조 조건에 따라 색을 다르게 인지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서, 외장색채계획시 적용대상 아파트가 보여줄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즉, 외장색채계획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도색 이전에 각 지역별 특성으로서 크게는 도시별로 작게는 농촌, 녹지, 해안 등에 따라 면적비의 조절이나 융통성있는 색채조합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 들어 유행색에 편중된 과감한 색채사용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각 건설업체들의 경쟁적인 유행색채 사용 경향으로 인한 것이다. 유행색은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주변환경과 부조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짧은 유행주기를 갖는 의복이나 가구와 달리, 환경색채의 변화주기는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행에 민감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색채계획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파트 외장에 사용가능한 색채의 적정기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의 조절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과 적용방법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요구된다.